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및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비교

이창희^{1*}, 정준호¹
¹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Comparis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s and Care Perceptions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ee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asics

Chang-Hee Lee^{1*} and Jun-Ho Jung¹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이하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전문직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였다. 교육생은 K소방학교와 A소방학교에 입교하여 2급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입교한 소방관들로 총 95명이었으며, 2급응급구조사는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로 2급응급구조사 심화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C시 S대학 단기과정에 입교한 총 78명의 대상자였다. 결론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은 주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개념이며, 교육생이 2급응급구조사 과정을 수료하는 것만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급업무 수행 중 위의 두 개념들이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explorative survey carried out to examine differences in professional self-concepts and emergency patient care perceptions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ees (namely, EMT-basic trainees or trainee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asic (namely, EMT-basic or technicians). The subjects are some trainees and technicians. The trainees included 95 fire fighters who had enrolled educational programs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asic at K and A Fire Academy while the technicians were 78 fire fighter gathering from all regions of the country who had enrolled a short expertise program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asic at S University in C City.

Key Words : Care perception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asics, Professional self-concepts

1. 서론

소방조직의 119구급대원은 응급상황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119구급대원으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급응급구조사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3-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

한 자를 의미하며, 2급응급구조사는 소방학교 등의 양성 기관에서 약 343시간의 법정교육시간을 이수 후에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1].

소방에서 근무하는 2급응급구조사는 대부분 소방학교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

*Corresponding Author : Chang-Hee Lee (Namseoul University)

Tel: +82-41-580-2731 email: emt-le@nsu.ac.kr

Received November 12, 2012 Revised December 5,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상의 증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1].

응급구조사가 이러한 응급의료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업무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처치 분야 외에도 응급환자를 이해하고 눈높이에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부분이 있다.

2급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행하는 전문가이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외적·내적인 부분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임을 생각해본다. 구급관련 자격증 소유여부 자체가 구급분야 전문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며 자기 존중감을 높여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취득 자체가 주는 자부심이 곧 자기 존중감을 높여 직무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무에 대한 전문인이라는 인식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 현재까지 응급구조사의 처우개선, 장비개선, 업무피로도 및 응급구조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3-5], 응급구조사가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자긍심 즉,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현재까지 응급구조사의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3-5], 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전문직자아개념은 전문적 지식, 가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를 통하고 구축되고[6],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능동적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성취가능성이 높다[7]고 하였다. 2급응급구조사 과정에 입교하는 대상자들 대부분이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입교하는 것과 단기간에 수료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2급응급구조사와 교육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의 형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어서 응급상황에서 강조되어지는 슬기의 이면에 자리하는 중요한 부분인 응급환자를 돌보는 일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종종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된다. 이는 현장의 응급처치가 순간적이면서도 외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내면을 겸비한 직종으로 본다는 것이다. ‘돌봄’의 사전적 정의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보살피는 일로서, caring을 우리말의 돌봄 혹은 보살핌에 해당하는 용어로 정의했으며, 또한 caring이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위하는 정신적 고뇌, 염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혹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8]. 이와 같은 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 간호, 신학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돌봄의 의

미에 대한 한 연구에서 강조된 용어들이 존중, 이해함, 성의, 따뜻함, 가르쳐 줌, 신뢰감, 지지, 관심, 도와 줌, 경청, 사랑, 편안함 등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9],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강조되는 행위요소 또한 다음과 같다. 환자신뢰형성, 보살핌, 온정적, 유능함, 확신, 경청, 언어와 의사소통 등이 그 예이다[10]. 이는 곧 응급구조사의 급박한 업무 가운데서도 돌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정 한 것은 1급응급구조사에 비해 단기간에 교육을 이수하는 2급응급구조사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알아보고, 전문직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2급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등에서 강조되어야 할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 간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이며, 응급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또한 두 집단 간의 지각상태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두 집단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의 돌봄 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한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및 응급환자 돌봄지각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지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8월 4일부터 동년 9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소방학교 및 A소방학교에 2급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입소한 교육생과 C시 S대학교에서 실시된 응급처치 심화과정에 입소한 전국에서 온 2급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작성을 요청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 95부와 2급응급구조사 78부로 전수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조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11]가 개발하고 송경애와 노춘희[12]

가 번역하였으며, 송희란[13]이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4점 Likert 척도, 30문항으로 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응급환자 돌봄 지각은 Arthur[11]가 개발하고 송경애와 노춘희[12]가 번역하였으며, 송희란[13]이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5점 Likert 척도, 42문항으로 된 응급환자 돌봄 지각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응급환자 돌봄 지각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3.1.1 2급 응급구조사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

2급 응급구조사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총 95명 중 남성이 89명(93.7%), 여성이 6명(6.3%)이었다.

연령별로는 21-25세 이하로부터 41-45세 이하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31-35세 이하가 43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41-45세 이하가 3명(3.3%)으로 가장 적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1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재학 이상이 2명(2.1%)으로 가장 적었다. 2급응급구조사 교육참여 동기에서는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가 31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이 3명(3.2%)으로 나타났다. 구급관련교육 수료여부에는 구급 2주 교육이 56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0명(10.5%)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무에 관련된 경력 여부에서는 구급 업무경력은 없음이 49명(51.6%)으로 가장 높았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1-3년 미만이 28명(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조업무경력은 경력 없음이 78명(82.1%)으로 나타났고, 경력자로서는 3-5년 미만이 6명(6.3%)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직 경력별로는 1-3년 미만이 37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9년 이상이 6명(6.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현재 직무는 화재진압경방이

3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경방이 2명(2.1%)으로 가장 적었다.

3.1.2 2급 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

2급 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총 78명 중 남성이 76명(97.4%), 여성이 2명(2.6%)이었다. 연령별로는 21-25세 이하로부터 45세 이상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41-45세 이하가 26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 이하가 1명(1.3%)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재학 이상이 1명(1.3%)으로 가장 적었다. 2급 응급구조사 지원 동기에서는 2급 응급구조사 교육생과 동일하게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가 3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이 4명(5.1%)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었다. 현재 직무에 관련된 경력 여부에서는 구급업무경력은 5-7년 미만이 14명(17.9%)로 13년 이상의 14명(17.9%)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이 3명(3.8%)으로 가장 적었다. 구조업무경력은 경력 없음이 65명(83.3%)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자로서는 1-3년 미만에서 6명(7.7%)이 가장 많았다. 소방직 경력별로는 13년 이상이 41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이 3명(3.8%)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 직무는 화재진압경방과 구급대원이 각각 33명(43.6%)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E.M.T-basic trainee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89 (93.7)
	Female	6 (6.3)
Age	21 ≤ - ≥25	4 (4.1)
	26 ≤ - ≥30	30 (31.6)
	31 ≤ - ≥35	43 (45.3)
	36 ≤ - ≥40	15 (15.8)
	41 ≤ - ≥45	3 (3.3)
Religion	Protestant	16 (16.8)
	Roman Catholicism	6 (6.3)
	Buddhism	21 (22.1)
	Other	1 (1.1)
	None	51 (53.7)
Education	High school <	22 (23.2)
	College<	30 (31.6)
	University<	41 (43.1)
	Graduate school ≤	2 (2.1)
Marital status	Married	32 (33.7)
	Single	63 (66.3)

	Meaningful work	21 (22.1)
	Needs of the organization	31 (32.6)
Reason for application	Aptitude	3 (3.2)
	Self-development	21 (22.1)
	Other	19 (20.0)
Emergency service-related education	Basic Education(2weeks)	54 (56.8)
	Other	10 (10.5)
	None	31 (32.6)
	1>	14 (14.7)
Emergency service-career (years)	1≤->3	28 (29.4)
	3≤->5	3 (3.2)
	5≤->7	1 (1.1)
	None	49 (51.6)
	3≤->5	6 (6.3)
Rescue service-career (years)	5≤->7	5 (5.2)
	7≤->9	3 (3.2)
	9≤->11	3 (3.2)
	None	78 (82.1)
	1>	8 (8.4)
For fire fighter total career (years)	1≤->3	37 (38.9)
	3≤->5	13 (13.7)
	5≤->7	15 (15.8)
	7≤->9	16 (16.8)
	9≤	6 (6.4)
Administrative area of duty	Metropolitan city	26 (27.4)
	City	57 (60.0)
	County≤	12 (12.6)
	50>	3 (3.2)
Number of dispatch in emergency services (number/month)	50≤->100	8 (8.4)
	100≤->150	7 (7.4)
	150≤->200	4 (4.2)
	200≤->250	10 (10.5)
	250≤	5 (5.3)
	None	58 (61.0)
Current placement	Ambulance worker	2 (2.1)
	Ambulance driver	28 (29.5)
	Rescue worker	7 (7.4)
	Fire fighter	33 (34.6)
	Fire engine driver	25 (26.4)
Favorable job After training	Ambulance worker (Ambulance driver)	32 (33.7)
	Rescue worker	16 (16.8)
	Fire fighter(Fire engine driver)	30 (31.6)
	Administration	8 (8.4)
	Other	9 (9.5)

[Table 2] Characteristics of E.M.T-basic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76 (97.4)
	Female	2 (2.6)
Age	21≤-≥25	1 (1.3)
	26≤-≥30	5 (6.4)
	31≤-≥35	10 (12.8)
	36≤-≥40	25 (32.1)
	41≤-≥45	26 (33.3)
	46<	11 (14.1)
Religion	Protestant	11 (14.1)
	Roman Catholicism	3 (3.8)
	Buddhism	9 (11.5)
	Other	6 (7.7)
	None	49 (62.8)
Education	High school <	15 (19.2)
	College<	20 (25.6)
	University<	42 (53.8)
	Graduate school ≤	1 (1.3)
Marital status	Married	63 (80.8)
	Single	15 (19.2)
Reason for application	Meaningful work	18 (23.1)
	Needs of the organization	30 (38.5)
	Aptitude	4 (5.1)
	Self-development	9 (11.5)
	Other	17 (21.8)
Emergency service-career (year)	1>	3 (3.8)
	1≤->3	11 (14.1)
	3≤->5	8 (10.3)
	5≤->7	14 (17.9)
	7≤->9	9 (11.5)
	9≤->11	10 (12.8)
	11≤->13	9 (11.5)
13≤	14 (17.9)	
Rescue service-career (years)	1>	3 (3.8)
	1≤->3	6 (7.7)
	3≤->5	2 (2.6)
	5≤	2 (2.6)
	None	65 (83.3)
fire station total career(years)	1≤->3	4 (5.1)
	3≤->5	3 (3.8)
	5≤->7	7 (9.0)
	7≤->9	5 (6.4)
	9≤->11	10 (12.8)
	11≤->13	8 (10.3)
	13≤	41 (52.6)
Administrative area of duty	Metropolitan city	40 (51.3)
	City	27 (34.6)
	County≤	11 (14.1)
Number of dispatch in emergency services (number/month)	50>	7 (9.0)
	50≤->100	18 (23.1)
	100≤->150	21 (26.9)
	150≤->200	5 (6.4)
	200≤->250	7 (9.0)
	250≤	20 (25.6)
Current placement	Ambulance worker	34 (43.6)
	Ambulance driver	34 (43.6)
	Fire fighter	8 (10.3)
	Fire engine driver	2 (2.6)

3.2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Table 3과 같다.

교육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총 평균은 2.75점으로 나타났고 각 영역별로는 전문직 실무에서는 2.84점, 만족감은 2.75점, 윤리는 3.48점, 자기개발 및 리더십에서는 2.75점으로 나타났다.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총 평균은 2.88점으로 나타났고, 각 영역별로는 전문직 실무에서는 2.93점, 만족감은 2.69점, 윤리는 3.48점, 자기개발 및 리더십은 2.80점으로 나타났다.

3.3 응급환자 돌봄 지각

대상자의 응급환자 돌봄 지각은 Table 4와 같다. 교육생의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총 평균은 3.73점으로 나타났고 각 영역별로는 이론적 영역이 3.76점, 실무적 영역은 3.79점, 교육적 영역은 3.46점으로 나타났다. 2급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총 평균은 3.79점으로 나타났고 각 영역별로는 이론적 영역이 3.87점, 실무적 영역이 3.82점, 교육적 영역은 3.59점으로 나타났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3.4.1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이하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 중

구급출동 건수($p<0.01$)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성별에서는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남성(2.97점)과 여성(3.00점) 모두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연령에서는 21-25세 이하(3.2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3.02점)이 약간 높았다. 종교에서는 개신교 등 모든 종교가 3.00점으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3.05점)이 가장 높았다.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3.10점)서 지원한 그룹이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2.67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전 구급관련 교육수로 여부에서는 기타(3.1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근무 행정구역에서는 시(3.02점)에서 근무하는 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급업무 경력에서는 없음(3.04점)이 가장 높았고, 구조업무 경력에서는 7-9년 이하(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방조직 근무경력에서는 9년 이상(3.17점)이 가장 높았고, 5-7년 미만(2.8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급출동 건수(센터/월)에서는 100-150건 미만(3.2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업무에서는 화재진압경망(3.0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로 후 희망업무에서는 구조업무(3.19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Professional self-concepts of E.M.T basic-trainee & E.M.T basic

Classification	E.M.T basic-trainee		E.M.T basic	
	%	SD	%	SD
Professional practice	2.84	.813	2.93	.643
Satisfaction	2.75	.818	2.69	.855
Ethics	3.48	.680	3.48	.627
Self-development & leadership	2.75	.836	2.80	.737
Total	2.75	.818	2.88	.722

[Table 4] Emergent patient care perceptions of E.M.T basic-trainee & E.M.T basic

Area	E.M.T basic-trainee		E.M.T basic	
	%	SD	%	S
Theoretical area	3.76	.945	3.87	.813
Practical area	3.79	.902	3.82	.857
Educational area	3.46	.950	3.59	.975
Total	3.73	.927	3.79	.874

[Table 5]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f-concepts(E.M.T-basic trainee)

Characteristics		n	(%)	SD	t/F	p-value
Gender	Male	89	2.97	.575	-.127	.903
	Female	6	3.00	.632		
Age	21 ≤ - > 25	4	3.25	.500	1.211	.312
	26 ≤ - > 30	30	3.00	.695		
	31 ≤ - > 35	43	2.98	.462		
	36 ≤ - > 40	15	2.93	.594		
	41 ≤ - > 45	3	2.33	.577		
Marital status	Married	32	2.88	.609	-1.098	.277
	Single	63	3.02	.553		
Religion	Protestant	16	3.00	.632	.060	.993
	Roman Catholicism	6	3.00	.000		
	Buddhism	21	3.00	.447		
	Other	1	3.00	-		
Education	None	51	2.94	.645	.594	.620
	High school <	22	3.05	.375		
	College<	30	3.03	.556		
	University<	41	2.88	.678		
	Graduate school ≤	2	3.00	.000		
Reason for application	Meaningful work	21	3.10	.625	.667	.616
	Needs of the organization	31	2.97	.605		
	Aptitude	3	2.67	.577		
	Self-development	21	2.86	.655		
	Other	19	3.00	.333		
Emergency service-related education	Basic Education(2weeks)	54	2.91	.591	.757	.472
	Other	10	3.10	.316		
	None	31	3.03	.605		
Administrative area of duty	Metropolitan city	26	2.92	.484	.618	.541
	City	57	3.02	.641		
	County ≤	12	2.83	.389		
Emergency service-career(year)	1 >	14	2.86	.363	.559	.693
	1 ≤ - > 3	28	2.93	.539		
	3 ≤ - > 5	3	2.67	.577		
	5 ≤ - > 7	1	3.00	-		
	None	49	3.04	.644		
Rescue service-career(year)	3 ≤ - > 5	6	3.00	.000	.411	.801
	5 ≤ - > 7	5	2.80	1.304		
	7 ≤ - > 9	3	3.33	.577		
	9 ≤ - > 11	3	3.00	.000		
fire station total career	None	78	2.96	.545	.932	.464
	1 >	7	3.14	.378		
	1 ≤ - > 3	37	2.89	.614		
	3 ≤ - > 5	13	3.15	.376		
	5 ≤ - > 7	15	2.80	.775		
	7 ≤ - > 9	16	3.00	.516		
Number of dispatch in emergency services (number/month)	9 ≤	6	3.17	.408	3.189	<.05
	50 >	3	3.00	.000		
	50 ≤ - > 100	8	3.13	.354		
	100 ≤ - > 150	7	3.29	.488		
	150 ≤ - > 200	4	2.00	1.155		
	200 ≤ - > 250	10	2.90	.316		
	250 ≤	5	2.60	.548		
None	58	3.02	.546			

Current placement	Ambulance worker	2	3.00	.000		
	Ambulance driver	28	2.89	.567		
	Rescue worker	7	2.86	.900	.295	.881
	Fire fighter	33	3.03	.585		
	Fire engine driver	25	3.00	.500		
Favorable job after training	Ambulance worker(Ambulance driver)	32	2.91	.588		
	Rescue worker	16	3.19	.403		
	Fire fighter(Fire engine driver)	30	2.97	.669	.767	.550
	Administration	8	2.88	.354		
	Other	9	2.89	.601		

3.4.2 2급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2급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p<0.05$)과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성별에서는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남성(2.97점)이 여성(3.00점)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31-35세 이하(3.2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상태에서는 기혼(3.02점)이 약간 높았다. 종교에서는 천주교(3.33점)가 가장 높았고,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3.00점)과 대학원 졸업(3.00점)에서 가장 높았다.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에서는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3.17점)서 지원한 그룹이 가장 높았고,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2.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업무에서는 화재진압기관(3.5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근무 행정구역별에서는 군 이하(3.09점)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급업무 경력별에서는 11-13년 이하(3.22점)가 가장 높았고 1년 이하(2.67점)의 경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조업무 경력별에서는 5-7년 이하(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방직 근무경력별에서는 7-9년 이하(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1-3년 이하(2.50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급출동 건수별(센터/월)에서는 50건 이하(3.1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환자 돌봄 지각

3.5.1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환자 돌봄 지각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이하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 중 최종학력($p<0.05$)과 교육수료 후 희망업무($p<0.05$)에서 응급환자 돌봄 지각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성별에서는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남성(3.48점)이 여성(2.83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31-35

세 이하(3.6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상태에서는 미혼(3.48점)이 높았다. 종교에서는 천주교(4.00점)가 가장 높았고,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3.78점)이 가장 높았다.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3.76점)서 지원한 그룹이 가장 높았고, 기타(3.16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전 구급관련 교육수료에서는 구급기본교육수료(3.57점)가 가장 높았고, 현재 근무 행정구역에서는 광역시(3.58점)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급업무경력에서는 5-7년 이하(4.00점)가 가장 높았으나 인원이 1명이었으며, 1년 이하(3.64점)와 1-3년 이하(3.64점)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구조업무 경력별에서는 5-7년 이하(4.00점)가 가장 높았다. 소방조직 근무경력별에서는 3-5년 이하(3.92점)가 가장 높았고, 7-9년 이하(2.69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급출동 건수별(센터/월)에서는 150-200건 이하(4.25점)가 가장 높았다.

현재업무에서는 구급기관(3.7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료 후 희망업무에서는 구급업무(3.78점)가 가장 높았다.

3.5.2 2급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환자 돌봄 지각

2급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p<0.05$)과 구조업무($p<0.05$)에서 응급환자 돌봄 지각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

성별에서는 남성(3.30점)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31-35세 이하(4.0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상태에서는 기혼(3.33점)과 미혼(3.29점)이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서는 불교(3.67점)가 가장 높았고,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3.40점)에서 가장 높았다.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에서는 자기발전을 위해(3.78점)서 지원한 그룹이 가장 높았고,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3.00점)와 적성에 맞아서(3.00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f-concepts(E.M.T-basic)

Characteristics		n	(%)	SD	t/F	p-value
Gender	Male	76	2.97	.461	-4.98	.620
	Female	2	3.00	.000		
Age	21 ≤ - > 25	1	2.00	-	2.352	<.05
	26 ≤ - > 30	5	2.60	.548		
	31 ≤ - > 35	10	3.20	.422		
	36 ≤ - > 40	25	3.00	.289		
	41 ≤ - > 45	26	3.00	.490		
	45 <	11	2.91	.539		
Marital status	Married	63	3.02	.458	1.777	.089
	Single	15	2.80	.414		
Religion	Protestant	11	3.09	.539	1.666	.167
	Roman Catholicism	3	3.33	.577		
	Buddhism	9	3.11	.333		
	Other	6	2.67	.516		
Education	None	49	2.94	.429	.102	.959
	High school <	15	2.93	.594		
	College<	20	2.95	.394		
	University<	42	3.00	.442		
Reason for application	Graduate school ≤	1	3.00	-	1.595	.185
	Meaningful work	18	3.17	.514		
	Needs of the organization	30	2.83	.531		
	Aptitude	4	3.00	.000		
	Self-development	9	3.00	.500		
Current job	Other	17	3.00	.000	1.019	.389
	Ambulance worker	34	2.97	.460		
	Ambulance driver	34	2.97	.460		
	Fire fighter	8	2.88	.354		
Administrative area of duty	Fire engine driver	2	3.50	.707	.420	.659
	Metropolitan city	40	2.95	.450		
	City	27	2.96	.518		
Emergency service-career(year)	County ≤	11	3.09	.302	.877	.529
	1 >	3	2.67	.577		
	1 ≤ - > 3	11	2.91	.539		
	3 ≤ - > 5	8	3.00	.000		
	5 ≤ - > 7	14	3.07	.475		
	7 ≤ - > 9	9	2.89	.601		
	9 ≤ - > 11	10	3.00	.471		
11 ≤ - > 13	9	3.22	.441			
Rescue service-career(year)	13 ≤	14	2.86	.363	1.823	.133
	1 >	3	2.67	.577		
	1 ≤ - > 3	6	2.83	.408		
	3 ≤ - > 5	2	2.50	.707		
fire station total carrer	5 ≤ - > 7	2	3.50	.707	1.153	.341
	None	65	3.00	.433		
	1 ≤ - > 3	4	2.50	.577		
	3 ≤ - > 5	3	3.00	.000		
	5 ≤ - > 7	7	2.86	.378		
	7 ≤ - > 9	5	3.20	.447		
	9 ≤ - > 11	10	3.10	.568		
11 ≤ - > 13	8	3.00	.000			
Number of dispatch in emergency services (number/month)	13 ≤	41	2.98	.474	.858	.513
	50 >	7	3.14	.378		
	50 ≤ - > 100	18	2.89	.323		
	100 ≤ - > 150	21	3.10	.436		
	150 ≤ - > 200	5	2.80	.447		
200 ≤ - > 250	7	2.86	.378			
250 ≤	20	2.95	.605			

[Table 7]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ergent patient care perceptions (E.M.T-basic trainee)

Characteristics		n	(%)	SD	t/F	p-value
Gender	Male	89	3.48	1.099	1.171	.290
	Female	6	2.83	1.329		
Age	21 ≤ - ≥25	4	3.00	1.155	1.963	.107
	26 ≤ - ≥30	30	3.50	1.075		
	31 ≤ - ≥35	43	3.67	1.107		
	36 ≤ - ≥40	15	2.80	1.146		
	41 ≤ - ≥45	3	3.33	.577		
Marital status	Married	32	3.38	1.212	56.276	.691
	Single	63	3.48	1.075		
	Protestant	16	3.31	1.302		
Religion	Roman Catholicism	6	4.00	1.095	.472	.756
	Buddhism	21	3.38	1.024		
	Other	1	3.00	-		
	None	51	3.45	1.119		
Education	High school <	22	2.91	.921	3.174	<.05
	College<	30	3.37	1.189		
	University<	41	3.78	1.037		
	Graduate school ≤	2	3.50	2.121		
Reason for application	Meaningful work	21	3.76	1.044	.876	.482
	Needs of the organization	31	3.52	1.061		
	Aptitude	3	3.33	.577		
	Self-development	21	3.29	1.347		
Emergency service-related education	Other	19	3.16	1.068	1.161	.205
	Basic Education(2weeks)	54	3.57	.151		
	Other	10	2.90	.348		
Administrative area of duty	None	31	3.39	.200	.371	.691
	Metropolitan city	26	3.58	.945		
	City	57	3.42	1.194		
Emergency service-career(year)	County ≤	12	3.25	1.138	1.285	.282
	1 >	14	3.64	1.151		
	1 ≤ - >3	28	3.64	1.129		
	3 ≤ - >5	3	2.33	.577		
	5 ≤ - >7	1	4.00	-		
Rescue service-career(year)	None	49	3.33	1.107	.985	.420
	3 ≤ - >5	6	3.17	.753		
	5 ≤ - >7	5	4.20	.837		
	7 ≤ - >9	3	4.00	.000		
fire station total career	9 ≤ - >11	3	3.00	1.732	2.318	.050
	None	78	3.41	1.145		
	1 >	7	3.57	1.134		
	1 ≤ - >3	37	3.51	1.096		
	3 ≤ - >5	13	3.92	.862		
Number of dispatch in emergency services (number/month)	5 ≤ - >7	15	3.67	1.291	.841	.542
	7 ≤ - >9	16	2.69	1.014		
	9 <	6	3.17	.983		
	50 >	3	4.00	1.000		
	50 ≤ - >100	8	3.50	1.069		
	100 ≤ - >150	7	3.71	1.469		
Current placement	150 ≤ - >200	4	4.25	1.500	2.014	.099
	200 ≤ - >250	10	3.50	.850		
	250 ≤	5	3.80	1.304		
	None	58	3.28	1.089		
	Ambulance worker	2	3.50	.707		
	Ambulance driver	28	3.79	1.067		
	Rescue worker	7	3.71	1.380		
Favorable job after training	Fire fighter	33	3.45	1.121	2.646	<.05
	Fire engine driver	25	2.96	1.020		
	Ambulance worker(Ambulance driver)	32	3.78	1.070		
	Rescue worker	16	3.69	1.138		
	Fire fighter(Fire enginedriver)	30	3.17	1.117		
Other	Administration	8	3.50	1.069		
	Other	9	2.67	.866		

[Table 8]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ergent patient care perceptions (E.M.T-basic)

Characteristics		n	(%)	SD	t/F	p-value
Gender	Male	76	(3.30)	1.020	2.856	<.05
	Female	2	3.00	.000		
Age	21 ≤ - > 25	1	3.00	-	1.737	.137
	26 ≤ - > 30	5	3.00	1.000		
	31 ≤ - > 35	10	4.00	.667		
	36 ≤ - > 40	25	3.44	.917		
	41 ≤ - > 45	26	3.00	1.200		
	45 <	11	3.18	1.008		
Marital status	Married	63	3.29	1.038	.179	.860
	Single	15	3.33	.900		
Religion	Protestant	11	3.64	1.286	.892	.473
	Roman Catholicism	3	3.00	2.000		
	Buddhism	9	3.67	.500		
	Other	6	3.33	.816		
	None	49	3.16	1.008		
Education	High school <	15	3.40	1.121	.179	.770
	College <	20	3.10	1.071		
	University <	42	3.36	.958		
	Graduate school ≤	1	3.00	-		
Reason for application	Meaningful work	18	3.28	1.227	1.841	.130
	Needs of the organization	30	3.00	1.050		
	Aptitude	4	3.00	.816		
	Self-development	9	3.78	.833		
	Other	17	3.65	.606		
Current job	Ambulance worker	34	3.41	.857	.373	.772
	Ambulance driver	34	3.18	1.086		
	Fire fighter	8	3.38	1.302		
	Fire engine driver	2	3.00	1.414		
Administrative area of duty	Metropolitan city	40	3.15	1.027	1.463	.238
	City	27	3.33	1.074		
	County ≤	11	3.73	.647		
Emergency service-career(year)	1 >	3	3.67	.577	1.175	.120
	1 ≤ - > 3	11	2.82	.982		
	3 ≤ - > 5	8	3.38	.916		
	5 ≤ - > 7	14	3.64	.842		
	7 ≤ - > 9	9	3.56	1.014		
	9 ≤ - > 11	10	3.80	1.135		
	11 ≤ - > 13	9	2.78	1.302		
Rescue service-career(year)	1 >	3	2.33	.577	2.815	<.05
	1 ≤ - > 3	6	3.50	.837		
	3 ≤ - > 5	2	2.00	.000		
	5 ≤ - > 7	2	2.00	1.000		
	None	65	3.40	1.222		
fire station total career	1 ≤ - > 3	4	3.25	.957	.895	.503
	3 ≤ - > 5	3	3.33	1.155		
	5 ≤ - > 7	7	3.43	.976		
	7 ≤ - > 9	5	3.40	.548		
	9 ≤ - > 11	10	3.90	.994		
	11 ≤ - > 13	8	3.38	.916		
	13 ≤	41	3.10	1.068		
Number of dispatch in emergency services (number/month)	50 >	7	3.71	1.113	1.401	.234
	50 ≤ - > 100	18	3.50	.857		
	100 ≤ - > 150	21	3.19	1.078		
	150 ≤ - > 200	5	2.40	.894		
	200 ≤ - > 250	7	3.57	.976		
	250 ≤	20	3.20	1.005		

[Table 9] Correlation among variables

E.M.T-basic trainee	Professional self-concepts
Emergent patient care perceptions	.180(<0.01)
E.M.T-basic	Professional self-concepts
Emergent patient care perceptions	.057(<0.01)

현재 업무에서는 구급경방(3.4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근무 행정구역별에서는 군 이하(3.73점)의 지역에서 근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급업무 경력별에서는 9-11년 이하(3.80점)가 가장 높았고, 11-13년 이하(2.78점)의 경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조업무 경력별에서는 1-3년 이하(3.50점)에서 가장 높았다. 소방조직 근무경력별에서는 9-11년 이하(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1-3년 이하(3.2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급출동 건수별(센터/월)에서는 50건 이하(3.7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6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의 상관관계

교육생($r=0.180, p<0.05$)과 2급응급구조사($r=0.57, p<0.05$)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응급환자 돌봄 지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Table 9).

4. 고찰

본 연구는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이하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교육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총 2.75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에서는 윤리, 전문적 실무 순이었고 만족감, 자기개발 리더십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2급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총계 2.88점으로 나타났고 윤리, 전문적 실무, 자기개발 및 리더십, 만족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 등[14]의 연구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였다.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와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전문직자아개념이 낮아져 간다고 추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급응급구조사가 교육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급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입소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입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2급응급구조사로서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직자아개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하위영역에서는 만족감에서 가장 하위로 나타나 2급응급구조사로서 구급업무 자체의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Seo[1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에서는 교육생에서는 출동건수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고, 2급응급구조사에서는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가 있었다.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에서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 모두 자신의 의지로 입소한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Song[14]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및 간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취지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경력별에서는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 모두 경력이 오래 될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대원 경력과 소방서 총 경력에서 또한 경력이 오래 될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다. 이는 Song[14]과 Lim[16]의 결과에서 간호사들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출동 건수에 따라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업무의 힘겹고 고된 것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의 응급환자 돌봄지각은 응급환자 돌봄 지각에서는 총계가 3.7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실무적 영역, 이론적 영역, 교육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2급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 돌봄 지각에서는 총계 3.79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는 이론적 영역이 3.87점, 실무적 영역이 3.82점, 교육적 영역은 3.59점으로 나타나서 이 응급환자 돌봄 지각 또한 2급응급구조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Song[14]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보다 간호사의 돌봄지각이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대상별 일반적 특성 별 응급환자 돌봄지각에서 교육생에서는 최종학력과 교육수로 후 희망 업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급응급구조사에서는 성별과 구조업무에서 응급환자 돌봄지각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에서는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 모

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입소한 경우 응급환자 돌봄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급응급구조사 교육 수료 후 희망 업무에서 구급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약 60%는 다른 업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경력에서 2급응급구조사인 경우 1-13년 이상 등 매우 다양한 경력을 나타내었는데 3-11년까지는 응급환자돌봄 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상에서의 경우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방조직 자체에서의 업무순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소방조직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응급환자 돌봄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hoi[17] 등의 연구에서 환자가 조직 적응력과 생존의 기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대상자들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돌봄지각의 상관관계에서는 교육생과 2급응급구조사 모두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응급환자 돌봄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9구급업무는 국민과의 최일선에서 행해지는 대민서비스이다. 2급응급구조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비단 응급환자 돌봄지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치로 형성될 것이다. 향후 2급응급구조사를 양성할 때 지원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전문직 자아개념을 탄탄히 형성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구급업무의 경력을 고려하여 업무순환을 적절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 95명과 2급응급구조사 78명을 대상으로 전문직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전문직 자아개념 및 응급환자 돌봄 지각 모두가 2급응급구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응급환자 돌봄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지각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현재 맡고 있는 일부 업무와 2급응급구조사 과정을 지원한 동기와 일부 경력 등의 변수에서 차이를 나타낼 뿐 출동건수 및 근무행정지역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과중함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응급

환자 돌봄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의 과정 중 혹은 2급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향후 응급구조사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응급환자 돌봄 지각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전문적 자아개념은 응급환자 돌봄지각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볼 때 소방의 모든 응급구조사들이 전문적 자아개념을 수립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2) 2급응급구조사 지원동기가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인 경우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후 2급응급구조사 교육생의 업무배치에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 3) 더 넓은 지역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Kang BW, etc. Emergency Medical related laws. pp. 124-125, 1(39), Chung-gu, 2012.
- [2] Cho JH.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job satisfaction in the 119-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Andong University, Kyoungsangbuk-do. Korea, 2006.
- [3] Kim JH. The influence of stress response and scene stress on physical symptoms in paramedic.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No4, pp.534-539, 2009.
- [4] Lee OH. The wort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5(1), pp.47-63, 2011.
- [5] Choi SS, etc.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among students in the deap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16(2), pp9-22, 2012.
- [6] Kelly, B.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undergraduates and their perceptions of influential forc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1(3),pp.121-125, 1992.
- [7] Lim SY, The correlation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leadership and nursing competency percived by nurse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allym University, Sioul, Korea, 2008.
- [8] Lee SJ, Jang SO. The study on the content analysis of caring, supporting, nursing situ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7(2), pp.279-298, 1995.
- [9] Lee YW, Bak EH. Meanings of caring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91(1), pp.86-97, 1997.
- [10] Choi ES, etc. Paramedic care principles & practice patient assessment, No3, pp.3-11, 2012.
- [11] Lee JY. Philosophical care.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Academic Festival, 1(15), pp.91-115, 2007.
- [12] Arthur, D.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15(5), pp.328-335, 1995, [Article\(CrossRefLink\)](#)
- [13] No CH, Song KA, Nurses's percep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5), pp.1368-1378, 2000.
- [14] Song HR.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2010.
- [15] Seo WH.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oungbuk University, Daegu, Korea, 2007.
- [16] Lim EA. Correlati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e in ICU.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ongju University, Chungcheongnam-do, Korea, 2009.
- [17] Choi ES, etc.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of fire official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3(3), pp.107-120, 2009.

이 창 희(Chang-Hee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아주대학교 의학과 (의학박사)
- 2004년 8월 ~ 2011년 2월 :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의학

정 준 호(Jun-Ho Jung)

[정회원]



- 2007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5년 3월 ~ 2012년 2월 :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 보건의료